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담장 형태의 변화와 그 요인

김동현 · 이원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I. 서론

하회마을은 국내 대표적 씨족마을로서, 조선시대 초기 촌락의 형태를 유지해왔으며,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마을의 배치구조를 인정받아 2011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이에 앞서 안동 하회 양진당(보물 제306호)을 포함하여 보물 2건, 천연기념물 1건, 국가민속문화재 9건,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1984년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표적 전통마을이다.

이에 따라 연간 백만명 이상이 관광객들이 하회마을을 찾고 있으나, 문화재 지정가옥을 제외한 가옥들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지 않아 하회마을에서 접할 수 있는 마을의 모습은 마을길을 따라 둘러진 담장과 수목 등의 수직적 경관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중 담장은 외부경관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해당 가옥의 경계를 설정하고 소유주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담장의 기능은 하회마을 내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의 진척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기존의 종합정비계획이나 조사보고서는 대부분 풍수나 공간구조 등 마을의 형성 및 배치에 관한 연구와 경관분석 등 조사 당시 마을의 현상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하회마을의 원형이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제강점기, 새마을 운동 등을 거치면서 변화된 마을의 모습을 간과한 채 현상만을 분석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담장은 마을길을 따라 형성하는 주된 경관요소이자, 근현대기 하회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속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진 대상이나, 하회마을 담장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담장과 관련한 연구는 한필원(2011), 이학섭과 손용훈(2011) 등이 수행한 바 있으나, 그간의 연구는 담장의 형태 및 기능에 대한 실태나 변화과정이 전반적으로 남아있지 않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담장의 형태가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안동 하회마을 가옥 전체의 담장을 대상으로 형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안동 하회마을을 대상으로 담장의 형태적 변화과정과 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그간에 수행되었던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하회마을은 전통공간으로서 조사된 시기는 통상적으로 1979년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하회마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당시 보고서가 작성되었던 시기인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점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는 하회마을 134개 가옥의 담장현황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몸체부와 머리부로 구분하고 소재와 형태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황을 사진촬영과 도면작성을 통해 기록하고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이외에 각 시기별 변화가 나타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신문기사나 사진자료, 선행연구결과 등의 문헌분석과 마을장인 및 주민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안동 하회마을 담장 형태의 변화

하회마을 담장 형태의 변화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5가지의 시기로 구분되었다. 각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1기는 1970년대 마을 중심부와 외곽에 위치한 가옥의 담장 종류와 소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기에 해당하며, 2기는 1980년대 새마을 운동 이후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이질적 형태의 담장이 도입된 시기로 설정하였다. 3기는 1990년대 전통공간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이루어지던 시기이며, 4기는 2000년대로 이질적인 형태의 담장 제거가 이루어졌다. 5기는 2010년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현상유지 중심의 관리방향이 이어지는 현재까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중·일 명승의 보존·관리 협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과제번호 : NRICH-1705-A12F-1) 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1) 근대기 하회마을 담장의 초기 형태(1970-1979)

1970년대 하회마을의 담장 토담에 이영을 얻은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바자울, 토담에 날장의 기와를 얻은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마을 중심부의 담장은 대부분 토담에 기와를 얻었고, 마을 외곽에는 토담에 이영을 얻거나 바자울이 설치되는 배치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시멘트블록을 이용한 담장이 있었다.

2) 이질적 형태의 담장 도입(1980-1989)

198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도로의 확장, 지붕계량 사업 등 전통적인 주거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1983년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문화공보부 장관의 하회마을 방문 시 지시사항에서도 '하회마을 내부의 경관을 해치는 시멘트 담장,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경향신문 1983년 11월 11일자 보도자료). 이는 하회마을 또한 시멘트블록이나 슬레이트와 같은 이질적인 소재가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안동하회마을 보존관리방안 조사연구보고서(1989)』에 의하면 '과거 초가집들은 기와로 잇지 않았으나 현재는 대개 기와로 처리하고 있으며, 초가집에 조성되었던 바자울 등은 관리가 불편하여 오래전에 없어졌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신축가옥을 중심으로 시멘트블록담장이 주로 사용되었다.

3) 하회마을 담장의 대대적 정비(1990-1999)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회마을은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담장의 형태가 급변하였다. 『안동하회마을 종합정비기본계획조사보고서(2001)』에 의하면 이전시기 담장의 형태와 소재가 다르게 나타나는 가옥은 총 59개소로 기존 토담이 토석담으로 교체된 곳이 26개소, 토담에 이영을 얻은 형태 또는 기존에 담장이 없었던 가옥에 토담을 쌓고 기와를 얻은 곳이 13개소, 시멘트블록담장을 이용한 가옥 9개소, 토담의 머리부에 일식기와 또는 슬레이트 기와를 얻은 가옥이 6개소, 토석담에 일식기와를 얻은 형태와 생울타리를 조성한 곳이 각 4개소가 확인되었다. 하회마을의 담장은 기존 토담에서 몸체부에 토석담 사용이 빈번해졌으며, 과거 담장 형태의 모습을 유지하기보다는 머리부에 기와를 올리는 획일적인 정비방식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식·슬레이트 기와 등 이질적인 소재를 이용한 담장이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외에 일부 시멘트담장을 허물고 과거의 모습대로 토담에 이영을 얻은 정비가 6건이 확인되었다.

4) 이질적 형태의 담장 제거 및 정비(2000-2009)

2000년대 하회마을은 마을 내 경관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주

로 시행되었으며, 담장 또한 사업내용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질적인 형태의 담장들이 토담에 기와를 쌓거나 이영을 얻은 형태로 교체되었으며, 이전시기 도입되었던 토석담에 기와나 이영을 머리부로 올린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시기 다수 확인되었던 시멘트 담장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전시기 시멘트블록을 쌓는 대신 마사토와 강회를 섞어 몸체를 조성했다는 마을 장인의 고증에 따르면 과거 토담과 유사한 형태의 현대적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5) 현상유지 중심의 관리(2010-2017)

이는 201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회마을 가옥의 담장 형태는 몸체의 경우 시멘트에 마사토와 강회, 자갈 등을 섞은 담장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토석담, 토담, 기타 재료 순으로 확인되어 2000년대에 도입된 시공기법이 점차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담장 머리부는 기와를 얻은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이영, 머리부가 없는 담장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하회마을 담장의 분포형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도 이전시기 담장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안동 하회마을 담장 형태의 변화요인

1970년대까지 하회마을의 담장은 토담에 기와를 얻은 형태가 대부분이며 마을 외곽에 생울타리나 바자울을 두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과거 하회마을은 하안에 위치하여 산에서 암석을 채취하기 어려웠으며, 강변 또한 모래톱으로 구성되어 담장에 돌을 쓰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임재해, 1992). 실제로 마을 장인과 주민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거 하회마을은 일부 양반가에 한해서만 토담에 기와머리를 얻은 형태의 담장을 조성하였으며, 일반 살림집의 경우 생울타리 혹은 바자울로 담을 대신하거나, 토담을 조성하더라도 짚, 혹은 마른 식물재료를 얻은 형태로 확인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신축가옥을 중심으로 담장에 시멘트를 사용한 사례가 증가하였다. 당시에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도로의 확장, 지붕계량 사업 등 전통적인 주거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로(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1970년대 이전 마을의 모습을 동결, 원형보존할 것을 제시하였으나(경상북도, 1979), 전통이나 원형에 대한 관념이 성립되지 않았던 사회적 인식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회마을의 담장은 형태적으로 이전시기와 뚜렷한 구분이 나타났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원형보존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보존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하회마을은 건축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부공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 풍모를 지닌 형태로의 회귀만이 이루어지면서 토석담이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하회마을 방문은 변형되거나 훼손되었던 하회마을 정비에 원형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가 반영되기 보다는 전통마을로서의 경관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담장을 조성하는 공법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전시기 문화재 지정 및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주요 인물의 방문은 하회마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른 과도한 정비는 과거 담장이 없던 가옥에 담장을 조성하고 바자울이나 생울타리가 있던 외곽의 담장 또한 토담으로 교체되었으며, 시공기간의 감축과 재료비 절감을 위해 마사토와 강회를 섞은 토담의 조성이 보고되었다. 또한 일부 관광객들의 의식 부족은 마을 내 담장에 쇠붙이로 이름을 새겨 벽면이 낙서투성이로 변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하회마을 주민들은 낙서를 막기 위해 토담을 시멘트로 벽면을 마감하는 등 마을 내 경관이 훼손되었다(연합뉴스 2001년 2월 8일자 보도자료).

2010년대는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의 시기로 2000년대 이루어진 정비사업 이후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에 의거 대대적인 사업시행보다는 마을 구성요소에 대한 유지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 토담의 형태는 오늘날 색채와 형태만이 유사할 뿐 소재와 축조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 조성된 담장보다 내구성이 떨어짐에 따라 담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정비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전 하회마을 담장 중 상당부분이 과거의 시원적 형태와는 다른 모습이 원형으로 간주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는데서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안동 하회마을을 대상으로 담장의 형태적 변화과정과 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그간에 수행되었던 조사연구 결과와 현장조사 및 주민인터뷰를 토대로 변화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까지 하회마을 중심부의 반가에서는 토담에 기와를 얹은 형태였으며, 마을 외곽에는 생울타리나 바자울을 두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보인다. 이는 주민 인터뷰 결과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과거 하회마을 담장의 시원적 형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980년대 들어서는 신축가옥을 중심으로 시멘트블록을 이용한 담장 조성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새마을 운동 이후

시멘트를 활용한 담장 조성이 새로운 공법으로서 주거형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문화재분야에서도 외부공간 원형보존에 대한 관심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1990년대는 하회마을의 담장에 토석담이 다수 도입되었으며, 과거 모습과는 관계없이 토담에 기와를 얹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전시기와는 형태면에서 구분된다. 당시에는 원형보존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었으나 하회마을 원형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유명인사의 하회마을 방문에 의해 원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2000년대는 하회마을의 유명세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을 외곽부의 바자울이나 생울타리가 둘러진 가옥 또한 토담 또는 토석담이 조성되었으며, 시공기간의 감축과 재료비 절감을 위해 마사토와 강회를 섞은 담장이 조성되었다. 또한 일부 관광객들의 인식부족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기존 담장에 시멘트로 벽면을 마감하는 등 형태적 변질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섯째, 201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현재까지의 담장 형태는 마을 전반에 걸쳐 마사토에 강회를 얹은 몸체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머리부는 기와를 얹은 형태가 가장 많았다. 이는 2000년대 마을의 전반적인 담장의 형태는 유지하되 현대적 시공기법의 도입 점차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하회마을 담장 형태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개발중심의 국책사업과 유명인사 방문, 관광중심의 활용에 따른 훼손 증가 등 외부 요인이 도출되었으나, 주된 요인은 하회마을 담장의 원형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하회마을 조사연구는 외부공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며, 과거 기록에서도 그 모습을 살펴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차후 연구에서는 사진이나 도면 등 보다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담장이 변화되는 세부적인 과정과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경상북도(1979)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경상북도.
2. 경향신문 1983년 11월 11일자 보도자료.
3.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동성마을의 이해방식에 관한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4. 문화재관리국(1989) 안동하회마을 보존관리방안 조사연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5. 안동시(2001) 안동 하회마을 종합정비계획 조사보고서, 안동시.
6. 연합뉴스 2001년 2월 8일자 보도자료.
7. 임재혜(1992) 안동 하회마을, 주식회사 대원사: 서울.
8. 이학섭, 손용훈(2011) 하회마을 경관요소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2권 제1호, pp.21-40.
9. 한필원(2011)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휴머니스트: 서울.
1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www.unesco.or.kr.